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6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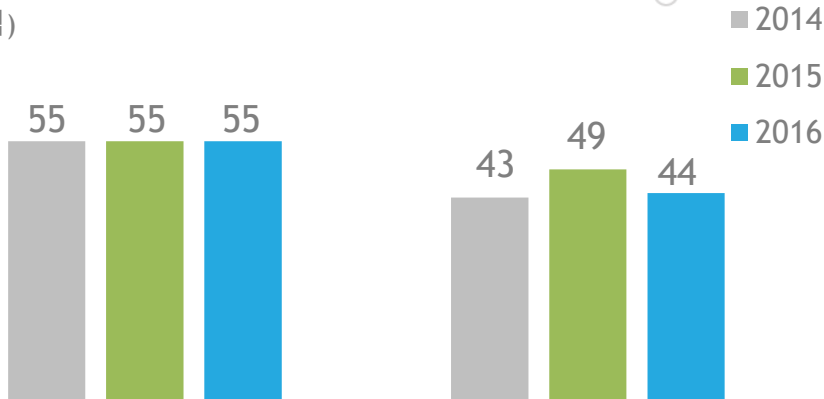
A. 조사개요	3
B. 조사결과 요약	4
C. 조사결과 상세	
1. 창업자	6
2. 대기업 재직자	20
3.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
4. 스타트업 재직자	31

A. 조사개요

조사제목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6
조사목적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의 인식과 현실을 파악
조사대상	<p>1) 창업자 17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 정보기술, 지식서비스 - 대상 : 창업자/공동창업자 (대표/임원/부장급 이상) - 연차 : 창업 1년 이내 46명, 1년 ~ 3년 이내 51명, 3년 이상 80명 <p>2) 대기업 재직자 5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 10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포스코) - 대상 : 사원 ~ 임원 <p>3) 대학교 졸업 예정 취업준비생 200명</p> <p>4) IT/지식서비스 스타트업 재직자 2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대표이사 이외의 재직자 <p style="text-align: right;">총 1,077명</p>
조사기간	2016년 9월 22일 – 9월 30일

B. 조사결과 요약

(단위:점)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 분위기 (N=177) 정부의 역할 및 기여도(N=177)

활용하고/투자받고 싶은 기관 (N=177)

	입주/활용	초기 투자유치	VC 투자유치
1위	구글캠퍼스 서울	드림플러스 (한화 S&C)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2위	상생혁신센터(SKIP)	더벤처스	한국투자파트너스
3위	창조경제 혁신센터	본엔젤스 파트너스	KTB네트워크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 (n=55)

	2014	2015	2016
1위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2위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3위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대표적인 스타트업 (N=500, 200)

	10대 그룹 재직자	대학교 졸업 예정자
1위	배달의민족	쿠팡
2위	쿠팡	토이스미스
3위	엘로우 모바일	배달의민족

B. 조사결과 요약

창업자의 생각

-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3년 연속 55점 근처이며, 초기 기업일수록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지속됨.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꼽았고, 내년에 비슷하거나 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부정적 견해보다 두 배 많았음.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전체 분위기를 하회하는 44점으로 조사되었고 전년 대비 하락함.
- 창업자의 31.3%가 해외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 관측됐음. 국가 기관 중에서는 중소기업청, 대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느끼며,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여전히 창업기업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지원센터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입주선호도에 있어서는 '구글 캠퍼스 서울'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 초기투자회사 선호도는 '드림플러스'(한화S&C)가 1위를 기록했으며 '더벤처스'와 '본엔젤스파트너스'가 그 뒤를 이음. 벤처캐피탈 부분은 인지도와 투자유치 선호도 모두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가 작년에 이어 모두 1위를 차지함.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 대기업 재직자 중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집단은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39.6%(Y/Y -3.7%)이며, 네 명 중 한 명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들이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생각

-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23.5%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40.8%로 나타남.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토이스미스'.

스타트업 재직자의 생각

- 스타트업 재직자의 41.5%가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본인의 직장을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재직자는 전체 응답자의 1/3로 나타남. 재직중인 회사의 CEO에 대한 평점은 6.5점(10점 만점 기준)

조사결과 (1) 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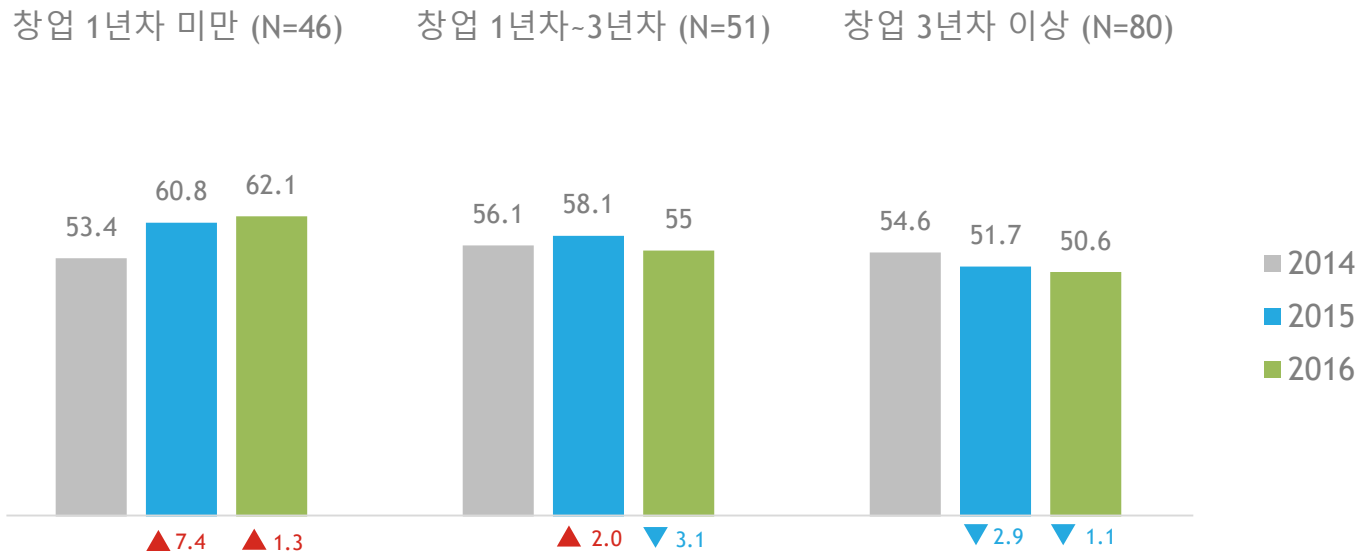


- 규모: 총 177명
- 산업: 정보기술, 지식서비스
-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대표/임원/부장급 이상)
- 연차: 창업 1년 이내 46명, 1년 ~ 3년 이내 51명, 3년 이상 80명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생태계 분위기는 3년 연속 55점 근처이며 초기 기업일수록 긍정적

전체 평균은 54.8점으로 연차 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창업 1년 미만 구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62.1, Y/Y +1.3) 3년차 이상에서 가장 낮게(50.6, Y/Y -1.1)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창업연차가 쌓일수록 생태계 분위기를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여러 비즈니스 규제, 투자, 사회적 분위기 등의 환경적 어려움과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3년 연속 생태계 분위기에 가장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전년 대비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23.3%)이 전년(31%)대비 7.7% 감소했으며, 나빠졌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증가(30.2%, Y/Y 5.2%)했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느낀 이유 (n=41)	부정적으로 느낀 이유 (n=53)
1위	사회적 인식 개선	정부의 인위적 정책 실패
2위	창업 기업인 역량 강화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지원
3위	역량있는 인재들의 유입	창업 기업인 역량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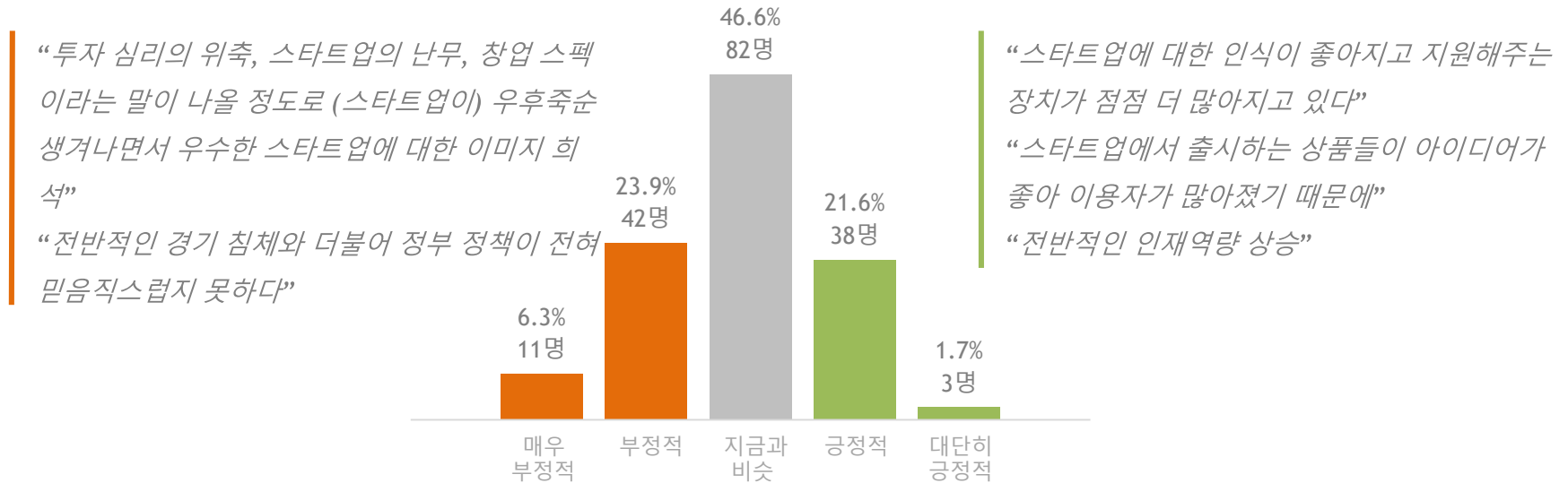
Q.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Q. 긍정/부정적으로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최대 2순위까지 선택해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분위기가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아닌 의견의 2배

긍정적 분위기를 예상하는 집단(23.3%, Y/Y -2.7%)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좋은 인재들이 생태계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집단(30.2%, Y/Y +0.8%)은 대기업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부정책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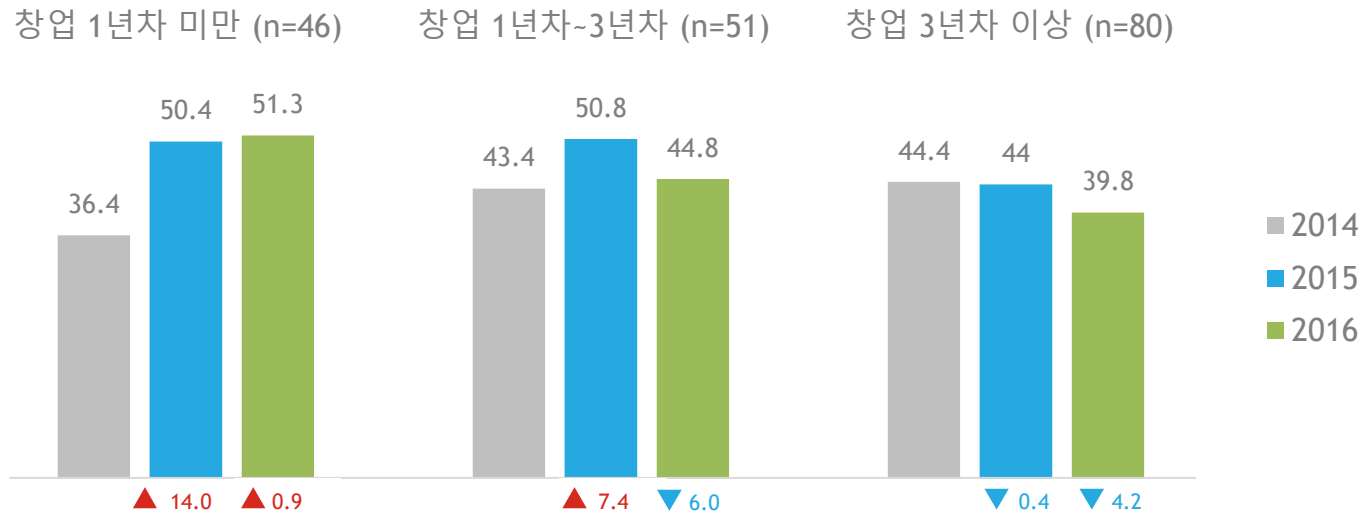
Q. 앞으로 일년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거라 생각하십니까?

Q. 긍정/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44점 (Y/Y -5점)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낮을수록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 했으며, 특히 창업 1년차 미만의 경우 전년 대비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식이(51.3점, Y/Y +0.9점)상승 했습니다. 반면 창업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점수가 하락 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자들은 여전히 기반자금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음

2016년,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반자금확보 / 투자 활성화 -> 규제 완화 -> 사회적 인식개선”을 꼽았습니다. 2016년에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Top3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2015(N=204)		2016(N=177)	
1위	기반자금 확보 / 투자 활성화 (56.9%, 116명)	1위	기반자금 확보 / 투자 활성화 (47.7%, 84명)
2위	규제완화(온라인상거래 법령 등) (31.9%, 65명)	2위	규제완화(온라인상거래 법령 등) (38.6%, 68명)
3위	우수인력 확보 (22.1%, 45명)	3위	사회적 인식개선 (25%, 44명)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하는 점을 두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 성공의 세 가지 요소는 전문지식, 사업기획과 제품개발, 그리고 자금조달

창업 성공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전문지식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사업기획과 제품개발, 자금조달 능력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45, 1순위)	창업 1-3년차 (n=51, 1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80, 1순위)
1위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37.8%, 17명)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37.3%, 19명)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23.8%, 19명)
2위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자금조달 능력 (17.8%, 8명)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23.5%, 12명)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20%, 16명)
3위		자금조달 능력 (13.7% 7명)	자금조달 능력 (17.5%,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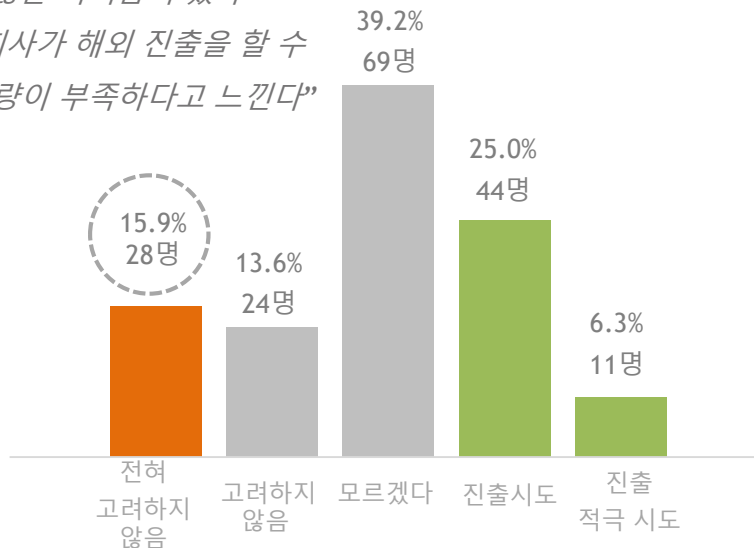
Q.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창업기업인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감소한 가운데,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작년대비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비율이 감소(31.3%, Y/Y -12.3%)한 가운데,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작년에 3위에 머물렀던 중국이 올해 1위(49.1%)로 상승했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소폭 감소(25.5%, Y/Y -4.8%)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내실을 다지는 것
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직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진출 선호 국가 (N=55)

	2014	2015	2016
1 위	미국	중국, 일본 외 동남아	중국
2 위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외 동남아
3 위	중국, 일본 외 동남아	중국	미국

Q. 현재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Q.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 중인 지역을 한 곳 선택해주시요.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IT/지식서비스 창업자들이 꼽은 가장 적극적인 정부 기관은 창업진흥원

IT/지식서비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꼽았으며, KOCCA(한국콘텐츠진흥원)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조 인지도 (2가지 선택) (N=177)				비보조 인지도	
1위	창업진흥원(중소기업청) (78.4%, 139명)	4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7%, 40명)	1위	창업진흥원(중소기업청) (28.8%, 51명)
2위	KOCCA(한국콘텐츠진흥원) (47.7%, 84명)	5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10.8%, 19명)	2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4.0%, 7명)
3위	SBA(서울산업진흥원) (43.6%, 46명)	6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8.0%, 14명)	3위	SBA(서울산업진흥원) (1.7%, 3명)

Q. 국내에서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네이버, 카카오, 삼성이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나타남

IT/지식서비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국내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 > 삼성 > SK를 꼽았습니다.

보조 인지도 (2가지 선택) (N=177)				비보조 인지도	
공동 1위	네이버, 카카오 (54.5%, 96명)	4위	SK (37.5%, 66명)	1위	삼성 (17.6%, 31명)
		5위	CJ (23.9%, 42명)	2위	SK (6.8%, 12명)
3위	삼성 (42.6%, 75명)	6위	KT (18.8%, 33명)	3위	네이버 (6.2%, 11명)

Q. 국내에서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여전히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창업 연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창업가들은 투자를 유치하는 벤처 캐피탈을 선정할 때 기업의 가치와 투자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기업일수록 투자사의 평판을 중요시하고 3년차 이상의 기업은 자금 이외의 지원을 고려 요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성장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46, 1순위)	창업 1-3년차 (n=51, 1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81, 1순위)
1위	창업기업의 가치 (35.6%, 16명)	창업기업의 가치 (49.0%, 25명)	창업기업의 가치 (36.3%, 29명)
2위	투자 받을 금액 (24.4%, 11명)	투자 받을 금액 (27.5%, 14명)	투자 받을 금액 (26.3%, 21명)
3위	투자회사의 평판 (17.8%, 8명)	투자회사의 평판 (13.7%, 7명)	자금 이외의 지원(멘토링, 구인 등) (16.3%, 13명)

Q. 투자를 유치할 때 벤처 캐피탈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 센터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가장 입주하고 싶은 곳은 구글 캠퍼스 서울

비보조 인지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 디캠프 > 문화창조벤처단지(Cel)

보조 인지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 구글 캠퍼스 서울 >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입주/활용 선호도 : 구글 캠퍼스 서울 >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 창조경제혁신센터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N=177)	입주/활용 선호도 (N=177, 1순위)
1위	창조경제혁신센터 (4.5%, 8명)	창조경제혁신센터 (55.7%, 98명)	구글캠퍼스 서울 (30.7%, 54명)
2위	디캠프 (2.8%, 5명)	구글캠퍼스 서울 (47.7%, 84명)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13.1%, 23명)
3위	문화창조벤처단지 (1.1%, 2명)	상생혁신센터 (SK플래닛) (41.5%, 73명)	창조경제혁신센터 (11.4%, 20명)

* 비보조 인지도 - 보기 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Q. 창업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입주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를 순서대로 3개지만 골라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기 투자회사는 더벤처스, 투자유치 선호도는 드림플러스

비보조 인지도 : 본엔젤스파트너스 > 프라이머 > 더벤처스

보조 인지도 : 더벤처스 > 드림플러스(한화S&C) > 본엔젤스파트너스

투자유치 선호도 : 드림플러스(한화S&C) > 더벤처스 > 본엔젤스파트너스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N=177)	투자유치 선호도 (N=177, 1순위)
1위	본엔젤스파트너스 (7.3%, 13명)	더벤처스 (42.0%, 74명)	드림플러스(한화 S&C) (19.3%, 34명)
2위	프라이머 (2.8%, 5명)	드림플러스(한화 S&C) (33.0%, 58명)	더벤처스 (16.5%, 29명)
3위	더벤처스 (1.1%, 2명)	본엔젤스파트너스 (25.6%, 45명)	본엔젤스파트너스 (14.2%, 25명)

* 비보조 인지도 - 보기 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Q. 초기투자회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투자 받고 싶은 초기투자회사를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벤처 캐피탈과 투자유치 선호도는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비보조 인지도 :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 한국투자파트너스 > KDB캐피탈

보조 인지도 :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 한국투자파트너스 > KTB네트워크

투자유치 선호도 :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 한국투자파트너스 > KTB네트워크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N=177)	투자유치 선호도 (N=177, 1순위)
1위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4.0%, 7명)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58.5%, 103명)	소프트뱅크벤처스 코리아 (33.0%, 58명)
2위	한국투자파트너스 (1.7%, 3명)	한국투자파트너스 (53.4%, 94명)	한국투자파트너스 (24.4%, 43명)
3위	KDB캐피탈 (1.1%, 2명)	KTB네트워크 (31.8%, 56명)	KTB네트워크 (11.4%, 20명)

* 비보조 인지도 - 보기 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Q. 벤처캐피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투자 받고 싶은 벤처캐피탈을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조사결과 (2) 대기업 재직자



- 규모: 총 500명 (남성:250명, 여성:250명)
- 소속: 10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포스코 계열)
- 대상: 사원 ~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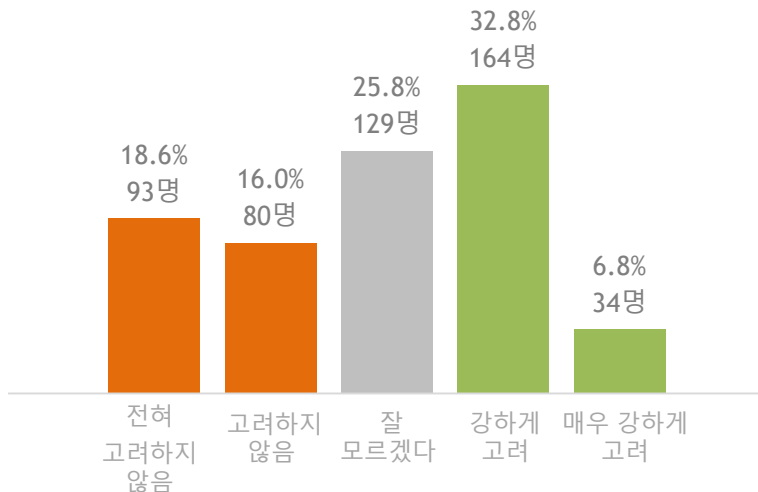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직접 창업에 대한 고려 수준이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이 40.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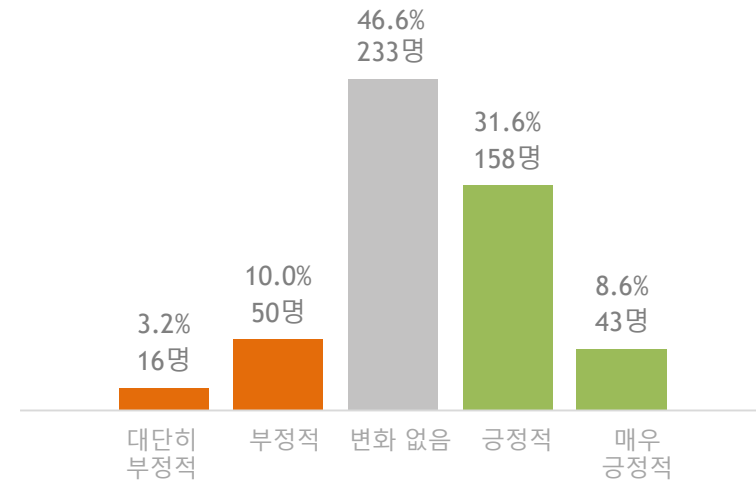
직접 창업에 대한 고려 수준이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40.2%)이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13.2%)보다 세 배 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39.6%) 작년대비 3.7% 감소했습니다.

IT/지식서비스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29.3%, Y/Y 5.3%)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500)



창업 고려수준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N=500)



Q. 최근 본인이 직접 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직접 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을 고려하는 대기업 재직자 중 29.3%가 IT/지식서비스업을 염두

창업을 고려하는 다수의 대기업 재직자들은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창업을 고려하고 있고, 29.3%는 IT/지식 서비스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지식서비스업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IoT, 콘텐츠 및 미디어/소프트웨어 개발로 나타났습니다.

염두하고 있는 업종(n=198)		IT/지식서비스 중 염두에 두고 있는 업종 (n=58)	
1위	서비스업 (음식, 숙박 등) (44.9%, 89명)		IoT (Internet of Things)
2위	IT/지식서비스업 (29.3%, 58명)	공동 1위	콘텐츠/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27.6%, 16명)
3위	유통업 (11.1%, 22명)		
4위	제조업 (7.1%, 14명)	4위	AI, 머신러닝 (22.4%, 13명)
5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5.6%, 11명)	5위	e커머스 (20.7%, 12명)

Q. 만약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염두에 두고계신 업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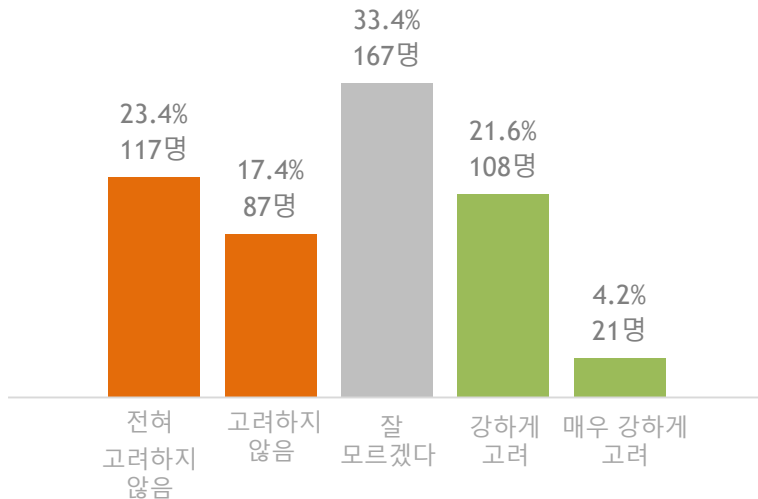
Q. 대답하신 IT/지식서비스업 중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입니까?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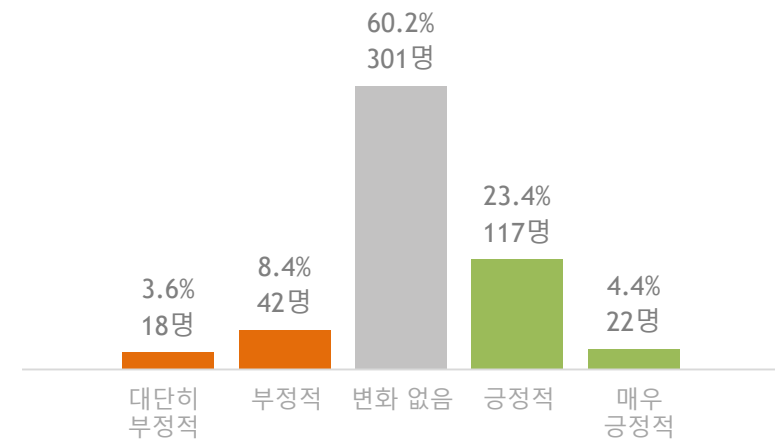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스타트업 이직고려 (25.8%)는 감소 추세 (Y/Y -7.2%)

올해 들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대기업 재직자의 비율(25.8%)이 고려하지 않는 사람(40.8%)의 비율보다 더 낮았습니다. 전년대비 이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7.8% (Y/Y -5.2%)였으며, 이는 대기업 재직자들의 인식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2015년에 비해 다소 침체 되어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500)



이직고려수준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N=500)



Q. 최근 본인이 이직을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대기업 재직자들의 긍정적 고려이유는 ‘속도’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집단은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37.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많이 언급된 작년과는 달리 ‘스톡옵션 등으로 인한 수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이직에 부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고용 안정성 불안에 대한 수치는 줄었지만 급여 등 복리후생 감소를 걱정하는 수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 고려이유 (n=296, 1순위)	부정적 고려이유 (n=204, 1순위)
1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7.2%, 110명)	급여 등 복리후생 감소에 대한 걱정 (44.6%, 91명)
2위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21.6%, 64명)	낮은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41.7%, 85명)
3위	스톡옵션 등으로 인한 수익 기대감 (18.6%, 55명)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의 부족 (3.9%, 8명)

Q.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개만 골라주십시오.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대기업 재직자가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으로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23명), 쿠팡(13명), 옐로우 모바일(6명), 토이스미스(6명), 게임코치(6명), 다방(3명)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특정한 기업을 명시하지 못한 응답자가 전체의 80%이상 에 달하는 것을 보면, 스타트업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23명

쿠팡 13명

옐로우 모바일 6명

토이스미스 6명

게임코치 6명

다방 3명

Q.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 혹은 서비스를 한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조사결과 (3) 대학교 졸업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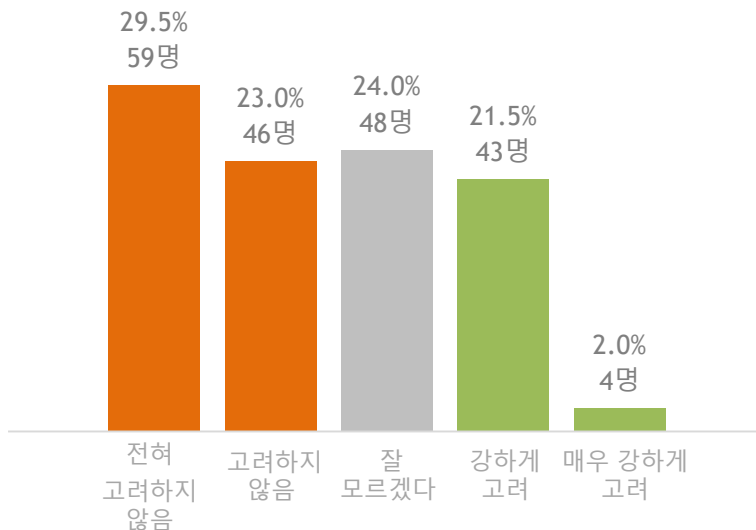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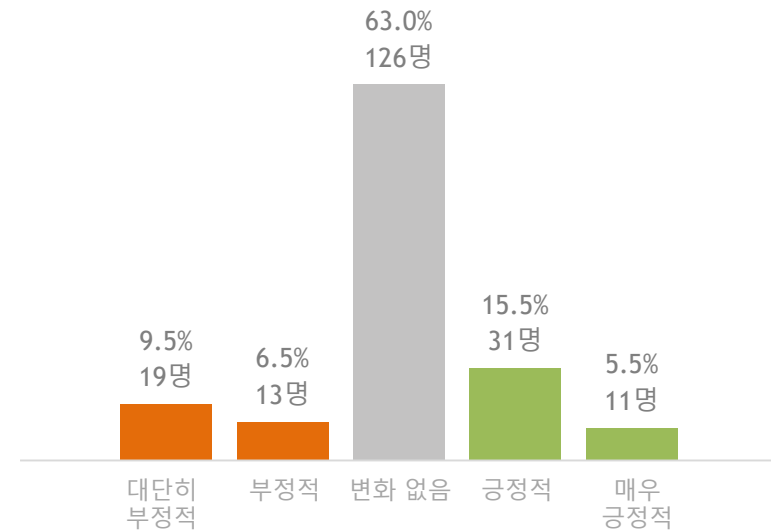
- 규모: 총 200명 (남성:100명 / 여성:100명)
- 대상: 대학교 4학년 이상 / 졸업 예정자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23.5%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은 올해도 대기업 재직자(39.6%)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23.5%)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된 집단(21%)이 작년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업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200)창업고려수준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N=200)

Q. 최근 본인이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대학교 졸업예정자 31.9% IT/지식서비스업 창업을 고려

IT/지식서비스업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31.9%로 대기업 재직자(29.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관심을 두고있는 IT/지식서비스 업종은 대기업 재직자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염두하고 있는 업종 (n=47)		IT/지식서비스 중 염두에 두고 있는 업종 (n=15)	
1위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42.6%, 20명)	공동 1위	IoT (Internet of Things) 컨텐츠/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40.0%, 6명)
2위	IT/지식서비스업 (31.9%, 15명)		
3위	제조업 (8.5%, 4명)	2위	소셜벤처 (26.7%, 4명)
4위	유통업 (4.3%, 2명)	공동 3위	핀테크 헬스케어 게임 (20.0%, 3명)
5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4.3%, 2명)		

Q. 만약 직접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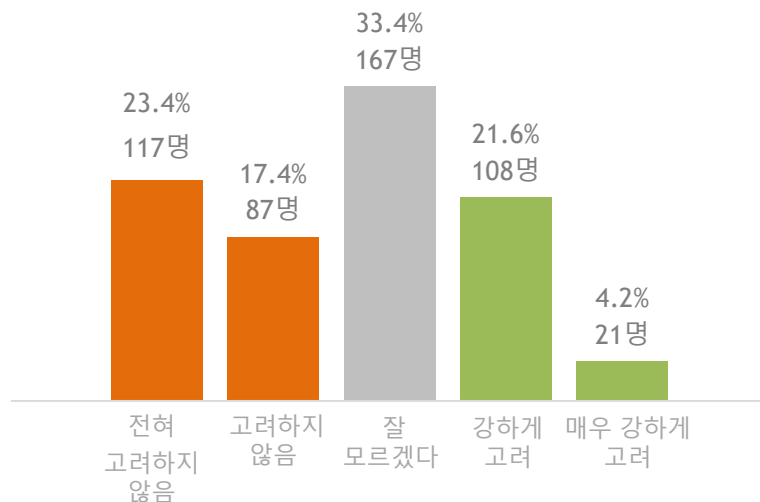
Q. 대답하신 IT/지식서비스업 중 염두에 두고 계신 업종은 무엇입니까?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40.8%가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음

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스타트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0.8%)가 2015년(15.5%) 보다 세 배 가량 높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스타트업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낮은 고용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스타트업 취업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200)



	긍정적 고려 이유 (n=102)	부정적 고려 이유 (n=98)
1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29.4%, 30명)	낮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 (50.0%, 49명)
2위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27.5%, 28명)	급여 등 복리후생감소에 대한 걱정 (29.6%, 29명)
3위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21.6%, 22명)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의 부족 (8.2%, 8명)

Q. 최근 본인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취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취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으로는 쿠팡(8명), 토이스미스(5명), 배달의 민족(4명), 직방(3명), 피키캐스트(3명)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업을 응답하지 못한 응답자가 응답자 전체의 80% 이상 달하는 것을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 8명

토이스미스 5명

배달의 민족 4명

직방 3명

피키캐스트 3명

Q.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 혹은 서비스를 한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조사결과 (4) 스타트업 재직자

- 규모: 총 200명 (남성:100명 / 여성:100명)
- 대상: 스타트업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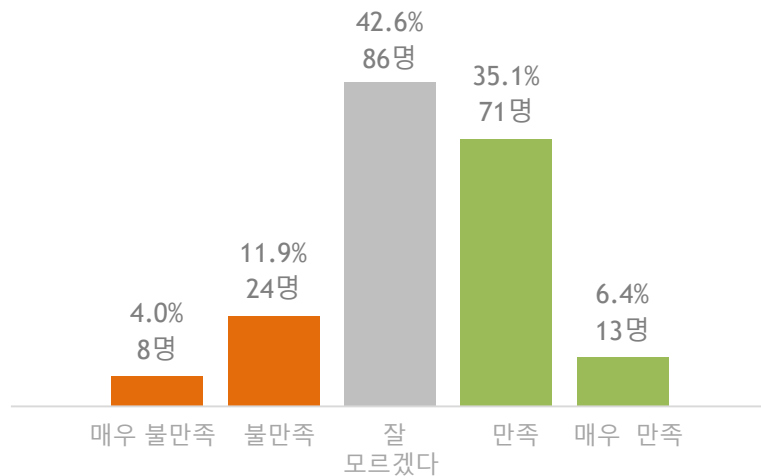


C-4. 스타트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 재직자의 41.5%가 스타트업 생활에 만족

스타트업 종사에 만족하는 비율이 41.5%로 불만족인 15.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 재직자가 남성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경력이 2~5년일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게 관측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재직자 역시 ‘속도’를 만족감을 주는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스타트업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N=200)



스타트업 재직에 가장 만족/불만족을 주는 요인 (N=200)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1위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28.2%, 57명)	낮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 (47.0%, 95명)
2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22.8%, 46명)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의 부족 (42.1%, 85명)
3위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19.8%, 40명)	커리어 설계의 불확실성 (39.6%, 80명)

Q. 현재 재직중인 스타트업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Q. 스타트업 재직에 가장 만족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C-4. 스타트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재직자들이 CEO에게 준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4점

스타트업 재직자들에게 재직중인 회사 CEO에 대한 점수를 매겨 달라고 한 결과 평균 6.4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주었고, 2년차 미만의 경력자들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 1점 정도 낮은 5.8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 CEO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존 회사들의 단점이 다시 드러날 때의 불만족이 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고 회사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며 월급이 보름씩 밀리고 있다.

“리더십의 부재. 일 자체가 좋고 보람 있다가도 그걸 사라지게 하는 마법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 현실감각 부족”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를 잘 해줌. 어려움이 생길 때 결단력있게 추진을 하는 모습”

“성실하고 리더십있으며 가치있는 회사 문화와 비전을 위해 노력”

“오너 마인드가 아니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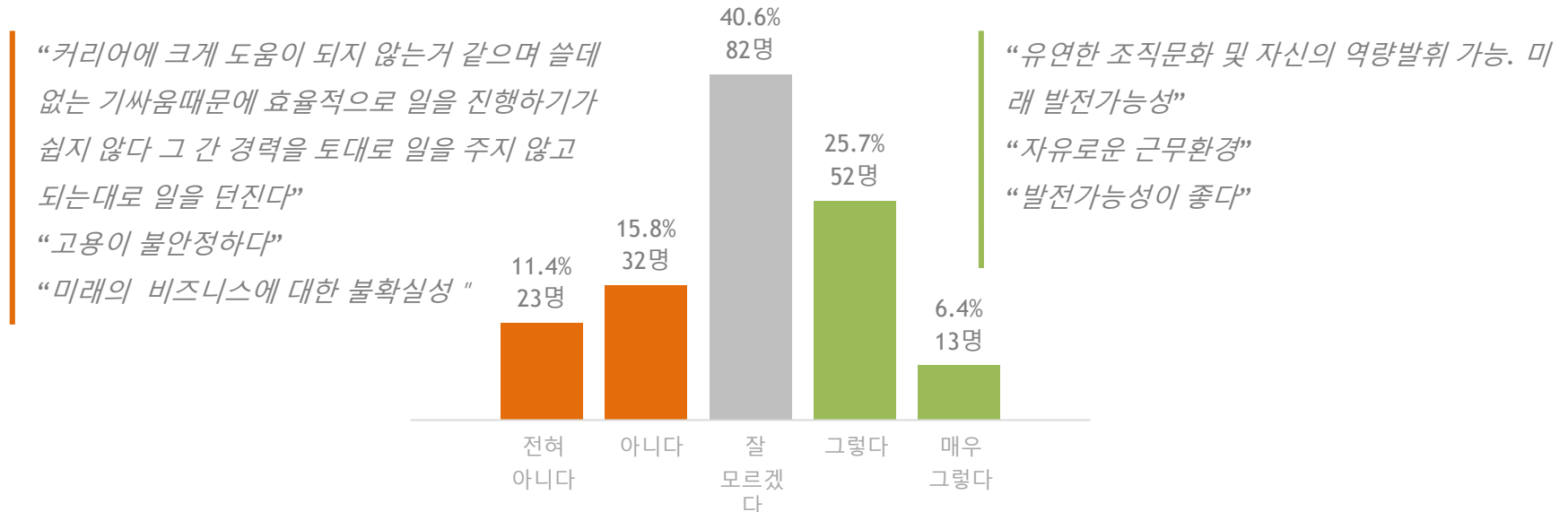
Q. 회사의 대표이사(CEO)에 대해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점: 자격미달, 10점: 탁월함)

Q. 직전 문항의 점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C-4. 스타트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 재직자의 1/3이 본인의 직장을 지인에게 추천

스타트업 재직자들의 32.1%가 재직중인 곳을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7.2%는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타트업 재직 추천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습니다.



Q. 지금 다니는 직장을 지인에게 추천 하시겠습니까?

Q. 직전 문항의 점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4](#)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5](#)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6



리포트 및 관련자료 문의
data@opensurvey.co.kr

